

社說

자기혁신과 역사창출의 주역으로 서라 - 4천3백25명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하하며

이해도 어김없이 졸업시즌이 다가왔다. 현실 지공과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수많은 졸업생들이 영광스러운 학위를 안고 교문을 나서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으로 학업의 성취이며 사회적으로는 인재의 배출이고, 부모님들께겐 커다란 기대와 보람일뿐 아니라 학교로서는 귀중한 교육적 성과라 할 수 없다.

졸업은 종결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매듭이 있는 것인데, 한시기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하는 의의야말로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칠수가 없다. 일에는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맺음도 분명해야 한다. 끝맺음이 분명한 자가 출발도 확실하다.

학문의 전당에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실하여 큰 결실을 얻었다. 기다리는 인내심도 배웠으며, 심리질도 한 걸음부터 이듯 과정과 지속성의 중요성도 터득하였다.

또한 학문을 연마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며 폭넓은 교양도 갖추었다. 그 점에서 그대들은 영광의 꽃다발을 듬뿍안고 교문을 나서시는 승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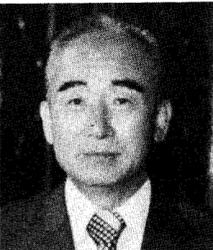
기대가 큰 만큼, 당부 또한 간절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사회에 신선한 도덕적 윤리적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사회의 몰신주의는 그 속에 담긴 이념이고, 문화는 감각과 욕구표출의 절정에 달한 것 같다. 모든 이가 아우성치는 것발처럼 자기 주장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경쟁하듯 달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질주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자성해 보아야겠다.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이다. 그동안 신기루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지나치게 우리의 사회, 정치, 문화에 주도적 요소가 되어왔다. 이제 거대한 인류의 실험의 한부분이 무너지는 역사의 대변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드라마를 어느쪽의 승리와 패배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된다. 오히려 겸허하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진지한 노력이 요청된다. 인간의 열망과 좌절, 장차와 단초,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지적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변화와 시대의 성격, 미래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새로운 비전창출의 주역이 될 것을 졸업생 여러분에게 또한 당부하고 싶다.

졸업은 오히려 학문의 시작이며 계속되는 자기혁신과 변혁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이제는 실험의 장이 보다 넓은 실험장 선택의 명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창조적 응전을 계속해야 한다.

이 풍진 세상에 때로 좌절이 있더라도 결코 절망은 없다.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으며, 시련을 오히려 연단의 과정으로 포용하며, 버릴것 버리고 갖출것 갖추는 역사창조의 주역이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 그대들의 미래 삶이 여러분의 어깨에 걸려 있었으니 나라의 운명은 여러분의 어깨에 걸려있다. 개인의 성취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넘치는 행운을 거듭 빈다.



총장 조영식 박사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졸업은 온 경희 가족과 함께 축하하면서 동시에 커다란 포부와 이상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변모하는 세계를 맞아 여러분의 포부와 소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지금 세계는 변혁기를 맞아 여러분의 순결한 정신과 빛나는 예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은 일찌기 서구시대의 몰락, 이념의 종언, 미국의 쇠퇴를 예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학자들이 이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이미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옮겨져 가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유럽이 통합되어 하나의 유럽으로 등장하고, 보수적 사회주의 학자들이 이념의 재건을 시도하는데도 대세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혹 미국이 오늘의 파스아베리카나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

◆ 제40회 학위수여식 총장 축하사

'경희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하자'

래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경제·정치적으로 불만이 형성되어 간다고 해도 한 나라가 세계 지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내가 역설해왔듯이 확실히 국가주의에서 지역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몇 개의 지역블록의 중심축이 결국 동북아를 끌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양에서 정신을 몸소 배우고 익히기 때문입니다. 역경에 처해도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참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려는 '창의적인 노력'의 정신과 하면 된다. 해내야만 한다는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한 사를 긍정적·능동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협동단결하여 해내려는 '건설적인 협동'정신의 맥을 여러분은 몸소 체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있는 이 자

조성되고 있는 반면,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진 조짐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화를 바르게 수용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혼란도 있었고 정파와 파쟁에 휘둘려 정치가 궤도를 이탈한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모두 한순간 쉬고 싶지만 해서도 안됩니다. 여차피 이곳은 우리의 우리의 후손이 살아가야

경제블럭화 추세속 동북아 주역으로 등장 의지와 창조력으로 사회 이끄는 동력되어야

발상한 문명이 유럽을 거쳐 아메리카 대륙, 아·태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왔다고 하면 그 다음 동북아시아가 도래하리라는 것을 기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중요로운 생활에 안주하려는 서구인들에 비해 새로 일어나고자 하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앞장서면서 문명의 중심지로서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나는 김희 여러분이 그 시대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학생생활을 통해 경희가 자랑스러이 내세우는 3대 리도 바로 스승과 선배들에게 전해준 '의지'의 역경을 뚫고 이상은 천국을 낳는다'는 경희정신에서 비롯 되었습니다. 나는 김희 이 정신이 사회를 이끌고 나라는 일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의 처지가 그리 밝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굳센 의지와 창조 능력이 발휘된다면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21세기 신세계의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남북합의사가 발표되는 등 대결과 냉전으로 일관해온 남북관계에 화해 분위기가

하며 통일된 미래의 꿈을 실현해야 하는 터전이기에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칠 때 조국의 발전이 있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일찌기 경험한 바 없는 중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이념적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제도가 창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내가 주장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보편적 민주주의, 즉 자유와 평등을 함께 구가하며 공영할 수 있는 제3민주주의에 돌입할

7천만 요구 반영된 통일정책 결실 - 제6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보고 나서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해 12월31일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이번 평양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도출해 냈다.

남북정부당국의 외교정책의 패가가 붓물처럼 터져듯 넘쳐나고 있다.

그간 남한정부의 공격적인 대북한 제스처가 실효를 거두었으며 또한 북한당국의 수세적인 대남정책의 필요가 만들어낸 조국통일을 위한 '결착품'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김주석과 우리 정부대표가 면담을 하고 기념촬영까지 했던 신문 1면의 톱기사 관련사건을 보면서 새삼 분단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남북간 교류의 일정이 종착역까지 가는 장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담 결과가 적지 않은 역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또한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남북총리가 첫 만찬연설을 통해 고위급회담이 같이 가야 할 동반자의 길이지만 똑 같은 보복과 의도만은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두 총리의 연설에서 총리가 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조속히 실현 해야함을 주장한 반면 연 총리는 이의 대답을 회피하며 군축과 일본핵통제 및 중공위안부 문제를 좀 더 성실하게 이행

하라는 주장에서 우리는 이들이 요구·기대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남북당국이 서로 회담 결과를 다른 질문에 대한 경제성 불만을 띤 '동문서답'으로 평가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가 중간과정만 순조로운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은 남북양측이 고위급회담을 하기위해 국민들의 의사를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을 받지 않은 남한당국과, 지난해 12월 합의된 '비핵화선언'을 해놓고 뒤늦게 오는 4월 핵안정협정 비준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도는 전지나 후자가 크게 다르지 않고 본다.

이는 남북이 표현한 '비핵화'와 '비핵지대화'의 차이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7천만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합의도 거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양측은 고위급회담의 합의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7천만 겨레가 합의의 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우리는 남과 북의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지 1992년 2월19일의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서 문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양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헤어지지 못하는 편파보도의 굴레

불공정한 선거제도 태도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가능을 강화시키는 했지만, 경영진 간부로 부터 편집권의 불완전한 독립과 보이지 않는 압력등은 아직 공정 보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민감한 일이 발생할 때 두드러져, 최근의 선거정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속성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2월 KBS, MBC 양 방송사는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하여 노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간 담화를 생중계 하였다.

노사문제에 대통령이 발벗고 나섰음을 타하지는 않지만, 문제

나라고 있다.

지난 19일자 서울신문은 1면에 대통령령의 지시로 '광주첨단기지 착공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연내 착수'를 머릿기사로 올렸다. 또한 18일자에도 민자담 선거공약 발표를 머릿기사로 올린것들은 객관적인 보도를 넘어 한쪽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한겨레신문 20일자 사실과 조선일보에서 '연두순시'라는 이름에 '동서고속 전철추진계획'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한쪽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으로 충분히 이용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 대

는 선거를 바로 앞둔 시기에 노사·정부의 협조를 강조하고 결국 경제난국을 임금인상 탓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점 일 것이다. 이것은 과거 중요 선거를 앞두고 안보의식 고취나 안정을 지지하는 특별프로그램 편성과 별다른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서도

고 황 만 평



“아직 좋아하긴 일러”

느때 보도도 선거보도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언론이 권력창출을 위한 수단이나 한쪽의 홍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국민에게 올바른 선거의 기준과 선거감시를 위한 눈과 귀 그리고 올바르게 선거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이고 국민을 위한 신문과 방송으로 태어나는 지름길인 것이다.

(송보영 記者)

올바른 선거기준·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필요

다수 신문은 혼탁상황이나 당사 가능성에 대한 흥미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이 선거에 임해 담당해야 하는 것은 흥미취우보다는 각 공약에 대한 충분한 해설과 무분별한 공약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올바른 선거정보와 공약에 대한 타당

POSCO메세지 ① 졸업축하편

뜻밖의 너의 축하편지 고맙게 받아 보았다. 이런 후배를 둔 나는 참으로 행복한 놀이라고 생각되는구나. 취직문제, 장래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때 자네를 만나 술 한잔 한 것이 그렇게 가지 가슴에 와닿았는지는 몰랐구나.

취문같다고? 이런 말은 처음 듣는구나. 그렇게 분위기가 좋게 보였다. 그 때의 고민, 번뇌가 속이 되어 지금의 열매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지.

글쎄? 사회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자신을 가꾸어 완성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할까? 직장이라는 것의 몸을 빌어 나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니 말이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있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난관을 찾으려 해매다니고 순수를 갈구하던 우리의 젊은 시절을 다시 느낄 수 있게 자네를 만나야겠네. 첫월급 타는 날, 우리 편하게 한 잔 하자구. 그 때 우리 남은 얘기 하기로 하고 이만 접겠네.

동현선배가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